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6.1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-한국,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...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(6.10)

- EU와 대한민국,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제11차 정상회의 개최
- 양측은 핵심 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 데 합의
-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중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예정: ▲무역, ▲투자, ▲공급망, ▲디지털, ▲첨단기술, ▲에너지 ▲혁신

○ EU 이사회 의장국, 호라이즌 유럽 예산 1,679억 유로 제안(6.11)

- 키프로스가 공개한 차기 다년도재정계획(MFF) 첫 번째 예산 협상안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(ECF)은 집행위 제안보다 약 4% 삭감될 전망
-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입장이 확정된 후, 양 기관과 집행위가 참여하는 삼자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 규모와 세부 배분이 결정될 예정
- 따라서 향후 예산 협상에서는 최대 500억 유로 이상의 차이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
○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, 무엇이 달라지나(6.16)

- 집행위는 프로그램 마지막 해인 2027년을 위한 대규모 워크프로그램 개정안을 준비하며, 차기 호라이즌 유럽 준비에 1억 9,300만 유로 투자 예정
- 이에 따라 집행위는 연구 성과가 시장과 산업 현장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(bridging) 사업을 추진
- 현재 초안에는 5개 분야, 총 12개의 신규 브리징 콜(bridging call)이 포함

- (기타) ▲집행위,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 1.1% 삭감 제안(6.11) ▲EU 경쟁력 예산 삭감 안 된다... 전문가·의원들, 정상들에 경고(6.16) ▲EU 이사회 의장국, 향후 18개월 동안 연구·혁신 지원 추진(6.10)